

‘최종전 무승부’ 광주FC, 2024시즌 9위로 마무리

후반 추가시간 신창무 동점 PK 전복 상대로 1-1 극적 무승부 14승 5무 19패... 최종 승점 47 이정호 "1부리그 잔류 만족해"



올해 리그 최종전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 극적인 무승부를 거둔 광주 FC가 최종 순위 9위를 기록했다. 이미 1부리그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었던 경기지만 최정에 라인업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만원 관중에게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선사했다.

광주는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시즌 최종전(38라운드)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무승부로 광주는 올 시즌 14승 5무 19패(승점 47)를 기록하며 최종 순위는 9위가 됐다.

이정호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유종의 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휴식 후 아시아 무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프로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하겠다는 각오였다. 팬들 역시 추위진 날씨에도 7957석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선발 라인업 역시 로테이션 없이 베스트로 꾸렸다. 정호연과 이건희가 최전방에 섰고 안혁주와 문민서, 박태준, 최경록



광주FC 정호연(왼쪽)과 변준수가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시즌 최종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둔 뒤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 허리를 구성했다. 김진호와 안영규, 변준수, 두현석이 포백을 이뤘고 김경민이 윙키퍼 장갑을 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둔 전북 역시 최정에 라인업으로 맞선 가운데 양 팀은 한 차례씩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선제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전반 내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먼저 크로스바를 강타한 쪽은 광주였다. 전반 3분 정호연이 중앙에서 띄워서 투입한 공을 문민서가 머리에 강하게 맞혔으나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온 뒤 전북 수비를 향하며 선제 득점이 무산됐다.

이어 전북도 크로스바를 때렸다. 전반 17분 김태환이 하프라인 아래에서부터 공을 몰고 올라간 뒤 크로스했고, 박재

용이 머리로 방향을 바꿨으나 크로스바를 강타하며 광주로서는 한숨을 돌렸다.

위기를 넘긴 광주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으나 마무리가 아쉬웠다. 전반 25분 전개 과정에서 수비를 맞고 굴절된 공이 전방으로 흘러갔고, 이건희가 소유한 뒤 김준홍 윙키퍼가 나온 골문을 노렸으나 골

포스트 옆으로 흘러나갔다. 후반에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진 가운데 선제골은 전북의 몫이었다. 후반 29분 권창훈이 광주의 후방 전개 시도를 끊어냈고, 티아고가 이 공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0-1이 됐다.

하지만 광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44분 김진호가 전북의 빌드업을 끊어낸 뒤 치고 올라가며 전진 패스를 투입했고, 신창무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영재가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신창무는 직접 키커로 나서 우측 상단을 깔끔하게 꿰뚫으며 1-1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정호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해 K리그 마지막 경기를 지지 않아 다행"이라며 "2주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더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다. 준비한 대로 경기장 안에서 잘 이행해줬고, 최종적으로 1부리그에 잔류했기 때문에 실패한 시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이어 "올 시즌 K리그1 우승을 바라보고 시작했다. 기대를 많이 했던 시즌이었고 독주하는 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18승이 목표였다"며 "목표를 이루지 못해 많이 아쉽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실점을 줄이고 득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제36회 광주광역시 시민체육대회 성료

5개구 생활체육동호인 1500명 참가 축구 1040점 획득 종합우승...4연패

'제36회 광주시민체육대회'가 23~24일 빛고을체육관 등 4개 경기장에서 15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한마음 계주와 단체 줄넘기, 계란 릴레이, 장기자랑, 슈퍼볼 굴리기 계주, 풍선 기동 릴레이 등 6개 종목의 구별 화합 경기와 검도, 야구, 축구 등 3개 종목별 경기가 진행됐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화합 경기와 종목경기 등에서 고루 선전해 종합 1040점을 획득한 복구가 차지하며 4연패를 달성했다. 광산구가 930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동구(907점), 남구(853점), 서구(837점)가 각각 3위~5위를 기록했다.

24일 열린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전진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또 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 위해 광주 대표 에어로빅팀과 줄넘기 시범단의 시연 공연으로 흥겨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빛고을체육관에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한 포토존과 양궁체험부스, 건강관리부스, 의료지원 부스가 운영돼 큰호응을 얻었다.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시민이 잠시나마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며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호인들과 다문화 가족들 모두가 어울리는 시민체육대회를 시민체전으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화합하는 체육문화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현수민·김민승, 태국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 남북 준우승

전대사대부고 현수민과 김민승이 2024 YONEX-SINGHA 태국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24일 광주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전대사대부고 현수민과 김민승은 지난 12~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한국의 조형우-이형우(이상 광명고) 조에 1-2로 석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는 13세 이하(U13), 15세 이하(U15), 17세 이하(U17), 19세 이하(U

19)로 구분되어 경기가 진행됐다.

고영구감독(전 전대사대부고 코치)이 이끈 한국주니어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19세 이하 남·여 각 10명씩 20명의 선수가 출전해 남북 우승·준우승, 여복 준우승, 혼복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혼합복식은 이형우-천혜인(전주성심여고) 조가 우승을, 여자복식은 천혜인-김태연(영덕고) 조가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최동한 기자

‘차이나 마스터스 제패’ 안세영, 파리 올림픽 후 첫 정상

결승서 가오팡제 2-0 완파

광주체고 출신 안세영(22·삼성생명·사진)이 파리 올림픽 이후 두 번째 도전 만에 세계 대회 정상을 제패하며 '셔틀콕 여제'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무릎과 발목 부상에 대한 우려도 완벽히 털어냈다.

BWF(세계배드민턴연맹)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24일 중국 광둥 선전에서 열린 리닝 차이나 마스터스 2024(슈퍼 750) 여자 단식 결승에서 가오팡제(중국·28위)를 2-0(21-12, 21-8)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 8월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차지한 뒤 약 3개월 만에 세계 대회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무릎과 발목 부상으로 올림픽 이후 휴식기를 가졌고, 복귀전이었던 지난 달 빅터 덴마크 오픈 2024에서는 준우승을 거둔 바 있다.

안세영은 32강에서 폰피차 초이키영(태국·48위)을 2-0으로 완파한 뒤 16강에서는 라차녹 인타는(태국·18위)에게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어 8강에서도 수파니다 카테통(태국·10위)에게 2-1 역전승을 거둔 뒤 준결승에서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튄중(인도네시아·8위)을 2-0으로 완파하며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에 나선 안세영은 가오팡제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했다. 1게임과 2게임에서 단 한 번의 리드는 물론이고 동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안세영(오른쪽)이 24일 중국 광둥 선전에서 열린 리닝 차이나 마스터스 2024 여자 단식 결승에서 가오팡제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 올라 기뻐하고 있다.

AP/뉴시스

점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를 선보였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두 점을 먼저 가져온 뒤 한 점을 내줬으나 다시 두 점을 가져오며 4-1로 격차를 벌렸다. 중반까지도 같은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안세영은 11-8에서 6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17-8로 가오팡제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이어 안세영은 두 점을 내줬으나 다시 세 점을 가져오며 20-10으로 게임 포인트를 잡았고, 두 점을 내준 뒤 다시 한 점을

가져오며 첫 게임을 21-12 큰 격차로 끝마쳤다.

2게임은 더 압도적이었다. 안세영은 6-3에서 4연속 득점을 가져오며 10-3으로 초반부터 격차를 크게 벌렸다. 이어 한 점을 내줬으나 4점을 내리 가져오며 14-4로 두 자릿수 리드를 잡았고, 15-6에서 또 4연속 득점으로 19-6을 만든 뒤 한 점을 주고받고 다시 한 점을 주고받으며 21-8로 경기를 끝냈다.

한규빈 기자